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청년창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 동 호**

-
- I. 서 언
 - II. 선행연구 고찰
 - III. 한·중 FTA 체결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 IV. 한·중 FTA를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V. 결 언
-

주제어 : 한·중 FTA, 경제적 기대효과와 문제점, 청년창업, 관세, 비관세 분야

I. 서 언

한중 FTA의 타결로 한국은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그동안 한국은 GATT의 설립으로 조성된 무역 자유화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현재 세계 무역 강국으로의 위치를 다지는데 국제 무역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내 산업 구조가 수출 제조 주도형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생산성은 높으나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유발의 주 대상층인 청년층의 고학력화 증대로 노동 생산성은 높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 오원석 교수님의 정년은퇴기념 논문집에 본 논문이 게재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열정적이며 자상하게 저를 이끌어 주신 오원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조교수, E-Mail : dhkym1@naver.com

적어 고학력 청년층 NEET族¹⁾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또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대기업 선호 등의 편중되고 신중한 자세와 강성 노동조합 등 제도적 측면에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높은 고용 보호로 정규 일자리와 임시직 간의 격차가 심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고용을 제고를 청년층의 창업 유도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청년층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된 시장의 여건이 성숙되고 시장의 규모도 창업하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시장이 필요할 것인데 중국 시장은 이런 조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에 직접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현재까지 현지 법인과 국내 기업 간의 수직적 무역 구조를 이용하면서 무역 비중이 높아져 왔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중국 현지 생산 증가로 국내 수출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커서 국내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³⁾ 중국 소비 시장을 선점하고자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현지 생산 확대가 대기업의 경우 국내의 고용에는 영향이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와 같이 무역의 증가가 고용과 상관관계가 점차 부정적으로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개선시킬 만한 상황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이 고용유발이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고용창출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따른 필요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의 하나로 제시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하나를 제시 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고용의 개선과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통해 산업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 중 FTA를 활용한 무역 활성화 가능성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중국 진출을 창업이라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1999년도 영국에서 유래되었다.

2)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013. 12, pp. 2~9.

3) 이은석·이정욱·박나연·김유신,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012. 7, pp. 13~22.

4) 상계논문, pp. 13~22.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보고 제3장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영향과 고용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한·중FTA 체결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서창배(2015)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활력소가 될 것이며 한국 산업 단지 중 새만금의 입지와 여러 중요한 점을 강조하여 이를 통한 생산과 물류의 복합 기지로서 역할을 연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결부 시켜 중국 중서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⁵⁾

또한 정상은(2013)은 연구에서 한중 FTA가 한국의 주요 제조업인 전지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 등에 주요 영향을 끼쳐 관세, 비관세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⁶⁾

안영철(2013)은 CGE 분석 모형의 결과에 따라 한·중 FTA는 한국의 무역수지와 소득을 크게 개선시키고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한국의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⁷⁾

박광서(2013)는 연구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쟁점 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한·중FTA 체결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분쟁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연구 하였다.⁸⁾

정재완(2012)는 연구에서 한·중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 연구

5) 서창배, “한, 중 FTA와 새만금의 역할”, 한중관계연구 제1권 제2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5.

6) 정상은,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7) 안영철, “한·중 FTA의 한국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3.

8)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쟁점사항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제5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로서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원산지 검증은 FTA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원산지의 결격 사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연구로서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⁹⁾

III. 한·중 FTA체결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1) GDP 증가 촉진

한국은 미국, EU와 더불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요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의 소비시장의 점유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개방 수준에 따라 GDP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중 FTA체결은 한중 양국의 무역, 투자, 소비시장 창출 등 소득 향상과 경제성장률의 기여 등을 통해 플러스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제적 효과 증대로 양국에 상당 수준의 경제적 이익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품목에 있어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아직 높아 FTA체결로 인한 양국의 개방 효과가 그다지 클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관세수준은 서방국가에 비해 큰 폭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 수준으로 낮추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이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큰 틀에서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정책을 실시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은 무역창출 효과와 경제 성장률에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노력이 중요한데 양국가간 FTA 체결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 되어 한국 상품의 혜택은 다른 경쟁국 대비 유리한 입장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효과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최근 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국내 불균형을 해결하고 수출중심과 해외투자유치 중심에서 내수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로의 정책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9)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삼성경제연구소(박순번, 2011)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민간소비 규모는 경제대국인 미국보다는 적지만 내수 중심의 소비 증가는 미국의 소비 증가를 초과하여 미국 대비 약 1.35배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⁰⁾

또한 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등은 선진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 수요의 정체 혹은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시장을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중국과 미국의 GDP 및 민간소비규모 전망(2005년 가격 기준)¹¹⁾

단위 : 억 달러

구분	GDP			민간소비		
	2009	2020	증가 규모	2009	2020	증가 규모
중국	34,738	83,363	48,625	12,091 (34.8%)	41,681 (50.0%)	29,591
미국	128,806	174,575	45,769	91,539 (71.1%)	113,474 (65.0%)	21,935
중국/미국 (%)	27.0	47.8	106.2	13.2	36.7	134.9

* 주: ()는 GDP대비 민간소비 비율.

그러나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은 한중의 경제 협력 관계 측면에서 경제 전반을 통해 한국의 최대 시장이자 협력국으로 격상되었고 현재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내수소비 진작에 편승하여 동반 성장할 필요가 있고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간재 중심의 수출도 중국 현지 조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대기업의 중국 투자도 더욱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활기를 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국내 고용 시장에는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플러스적 효과를 통해 국내 GDP는 최대 4%까지 증가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GDP와 국민 후생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FTA의 허브 국가로서 확고한 지위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FTA 체결국과의 개방화 정도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존일자리 확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10) 박순번·김화년·권혁재·박찬수,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4, pp. 8~12.

11) 상계논문, p. 10.

2) 체결국간의 산업 구조 조정

한중FTA가 체결되어 한국과 중국 동종업체간의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 품질, 브랜드 등의 비교우위 상품만이 시장에서 존재하여 자연스런 산업 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산업 간의 경쟁력 강화가 촉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직 혹은 수평 간 분업이 발달하여 체결국 내 산업 협력으로 중복과잉 투자 등의 자제와 산업 간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우위가 있는 전자, IT, 통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은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컴퓨터, 섬유, 통신기기와 일반 생활용품, 즉 의류 생활 소비재 등은 한국이 비교열위가 예상되어 동 산업의 중국 이전 및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중FTA 체결로 중국현지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 생산을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직접 제조와 수출이 가능하여 역내 구조조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시장에도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한국은 자본과 기술 중심의 산업에 집중하여 한중 FTA 체결로 동 산업으로의 자원 배분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중 FTA체결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볼 것이다.

3) 무역 투자 증대

한중 FTA체결은 양국의 무역 거래를 증가 시켜 기업에 대한 국내 및 해외 투자와 투자자가 증가하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 혹은 완화로 기업 등의 체결국 내 관련 비용 감소로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기업이윤의 확대 재투자 혹은 확장적 경제 운용이 가능하여 체결국 간의 시장 활성화와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으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체결국 내에 거점 확보로 실제적인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의 확보와 해외 직접 투자 유인도 가능할 것이다.

2. 한·중 FTA의 문제점

1) 관세 분야

관세 분야에서의 제반 문제점은 이번 한·중 FTA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차이는 있지만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제조업 분야를 보

면 한국은 기술 집약적, 자본재 성격이 강한 품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중국은 노동집약적, 저부가치의 상품에 대해 가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전기, 전자, 기계, 화학 등 자본재 성격의 상품 영역에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의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한 중 FTA 체결이후 그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¹²⁾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기업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농업 분야는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용이 낮고 가격이 경쟁력이 높으면서 이동거리가 짧아 농산물의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신선도도 상대적으로 좋아 한국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측면에서는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가 되고 젊은 노동력도 부족해서 농업 구조 조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은 실정이나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서비스 투자 분야는 한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보는 분야가 많아 양국이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로 중국은 한국에게 최혜국 대우와 의료,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인력자원 수출확대, 비자 문제 완화, 전문 자격증의 상호인증 등을 요구 하고 있으나, 중국의 인구와 지리적 접근성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문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지속적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투자 분야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한·중 FTA의 체결로 고용시장에서 한국의 우위가 점쳐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¹³⁾

2) 비관세 분야

비관세 장벽은 각 국의 무역 자유화가 활발하고 국가 간의 경쟁력과 구조가 과거와 달리 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원산지 증명의 강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를 통한 생활의 변화와 지구 환경의 보호, 건강, 후생의 증가, 식품 위생과 안전 의식 고취로 관세 분야의 한계를 비관세 장벽이 무역정책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¹⁴⁾ 이를 통해 각 국은 효율적으로 교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와 동시에 상대국에게 통상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등 무역의 자유화를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는 중국강제인증제, 자발적

-
- 12) 박윤환·최창환,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pp. 51~54.
 13) 최문·김상호·이천국,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9집, 한국지역경제학회, 2011, p. 216.
 14)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제11권 제24호, 한국무역협회, 2012. 06, pp. 1~2.

인증제, IT제품 오염통제정책, 차이나 REACH,¹⁵⁾ 차이나 ROHS¹⁶⁾ 등이 있는데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과 무역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로서 국제 표준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¹⁷⁾

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한·중 FTA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통해 한국 인증이 중국에서도 통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협정문 제5,6장에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위생 검역과 무역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충분치 않아 별도 상호인정협정을 협의하여 체결해야 할 것이다.¹⁸⁾

이를 통해 한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전자, IT, 자동차 등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고용상 문제점

한·중 FTA 체결로 산업별로 교역 패턴에 따라 경쟁력이 나뉠 수 있다. 경쟁력이 높은 산업인 유기화학, 플라스틱, 전자, 전자 부품 등은 한국이 우위인 반면 범용제품, 농수축산물 등은 중국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경쟁력 우위의 산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이고 경쟁력 열위의 산업은 도태되거나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 제3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별 차이는 기업의 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인데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 예상되며 국내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고용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고용 창출능력이 큰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중 FTA 이후에 내수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 유지, 유통 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고용의 증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 미비로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한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의 약자)

16)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난연제(PBBs, PBDEs)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다.

17) 정환우, 전개보고서, pp. 5~16.

18) 전병호·강병구,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pp. 178~179.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규제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조성을 통해 고용 시장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할 것이다.¹⁹⁾

IV. 한·중 FTA를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방안

최근 청년 고용의 현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청년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청년 창업은 필수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²⁰⁾에 의하면 2015년 12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9.2%로 나타나 청년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잠재성장률의 향상과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실업의 대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청년창업 선도 대학 지정, 창업교육 센터 설립 지원 등 산학과 연계된 청년 창업에 대해 많은 정책과 지원, 행정력 등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은 여러 기관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다 보니 관련 서류와 절차, 사후 정산 등 실제 수요층인 청년들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성과를 표출하려면 이런 정책들이 청년 창업을 통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전적 비판과 창업 생태계의 선 순환적 환경 조성을 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경제영토를 넓힘으로써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1) 창업가 정신의 함양

창업은 도전의식과 위험이 항상 내포된 것으로서 창업가는 이를 극복하고 진취

19) 최재섭, “한·중 FTA 체결과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pp. 123~124.

20)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2016. 1. 13, pp. 14~16.

적으로 나아가려는 정신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창조적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창업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연구로 신 시장에 대한 기회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창업가적 정신을 고취하려면 대학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가 있다는 확신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 예로 창업에서 성숙된 문화가 정착된 이스라엘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실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혁신적 사고로 창업가 정신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내에서도 실패의 두려움을 개선할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창업가의 전략적이고 혁신적 정신은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창업활동에 따른 창업기반 조성

청년창업은 미래의 동력으로써 취업의 대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실패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의 공유이다.

따라서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 모델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신기술을 중심으로 창업을 한다면 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8~9년 소요되는데 실리콘밸리의 경우와 같이 창업회사의 인수 합병, 사업양도 등 성공적 탈출구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²¹⁾ 이렇게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청년창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3) 취업 후 창업의 활성화

대부분의 창업은 대학시절부터 시작한 순수 창업 보다는 대기업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훈련 및 경험을 쌓고 이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회자되고 있는 창업의 성공자는 직장 경험을 토대로 한 창업의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반드시 취업은 대기업일 필요는 없으며 중소기업에서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 예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그 후 사내 분사 혹은 독립채산제 등과 같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준비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21) 박재환·박명수·김대엽,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pp. 21~22.

4) 창업의 장애 요인 개선

창업 활동은 창업과정에서 자본, 인력, 판매망 구축, 기술 확보, 정부의 규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을 만나게 된다. 특히 창업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인데 창업자금 조달의 경로는 대부분 개인자금 혹은 친인척의 자금이고 은행권이나 벤처캐피탈, 엔젤자금 같은 금융권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²²⁾

따라서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청년창업 전용 지원 자금의 확충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크라우드펀드와 같은 신종 금융기법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한·중 FTA를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중국 진출에서 중소기업 및 신규 상권 확보를 위한 창업의 시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정책 기조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서 중서부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한 제조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어 내수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국의 2~3선 도시²³⁾인 청두, 충칭, 시안 등을 목표로 하여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선 도시인 충칭, 청두는 시장 규모가 크고 중산층 비중이 높고 있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내수 시장을 위해 창업을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이 시장 전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중국의 소비자 분석이다. 중국은 인구 분포가 20-39세가 약 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59세로 30%를 차지하고 있다.²⁴⁾ 그렇지만 노령인구도 13%를 차지하여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중심 계층인 청, 장년층이 두텁다. 이들은 최근 추세에 맞게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이다. 그 예로 2015년 11월 11일 ‘솔로데이’에 인터넷 몰을 통해 총 구매 물량의 78%를 20-50대가 구매하였다.²⁵⁾

둘째로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영유아용 품목이 향후 유망하여 이들을 준비한다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경제인 연합회(2016)에 따르면 중국의

22) 양현봉·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12, pp. 79~87.

23) 중국은 도시의 규모, 경제력, 영향력,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1, 2, 3, 4선 등으로 분류하고 중산층 비중이 높고 있는 2-3선 도시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24) 한중훈, “6차 원칙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 키워드와 유망품목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 2016, 2. 4.

25) 상계보고서

여성 소득이 2020년에는 4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²⁶⁾하고 있어 이들 여성을 타겟으로 한 화장품 시장도 유망할 것이다.

셋째로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²⁷⁾(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따르면 친환경으로의 정책 수립을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에 편승하여 친환경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수요를 창출한다면 창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도시화를 가속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 구축에는 성장하는 2-3선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ICT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시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산업은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어 창업자들에게는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중국의 향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시장 잠재력도 클 것이다. 프리미엄 식품도 한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어 창업자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창업 후 성공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한 것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인 온라인 몰 등으로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이용한다면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중국 전역을 상대로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발전이 빠른 중서부의 2-3선 도시로의 진출도 확산될 수 있다.

여섯째, 한·중 FTA 로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열린 만큼 한국의 중소기업도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측면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의 약점인 디자인 경쟁력, 제품의 A/S 등과 같이 틈새시장을 이용한 창업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중국의 최근 트렌드에 맞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은 한·중FTA 체결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기회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6) 전계보고서.

27) 양평섭·박민수,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3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p. 7~11.

V. 결 언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 중국 수출액은 2015년 기준 1,370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26%를 차지하는 한국의 최대 시장이다. 그리고 한·중 FTA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한국의 GDP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 시장인 중국과 FTA 체결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은 새로운 시장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 FTA를 통해 양국은 산업별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제품을 포함하여 한국 청년들이 도전적 창업 정신을 갖고 창업을 한다면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포함하여 제2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중 FTA 체결로 인화된 관세혜택이 소비재 중심으로 클 것으로 보여 중국 중서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양국 동반 성장을 위한 분업체계를 활용한다면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중국 소비자와의 다각적 소통채널 구축이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채널 등 유통의 다각화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 창업의 장점인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발 앞선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에서 절정을 이룬 한류 등 문화와 융합한다면 FTA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한·중 FTA 체결로 수혜산업으로는 중국 내수활성화에 대비한 소비재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즉, 화장품, 친환경 제품, 프리미엄 식품 등 고급 소비를 위한 시장은 중국보다 한국이 발달되어 있고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초기 공략을 준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면 국가의 창조경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측면 지원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의 부족부분을 청년 창업을 통해 보완한다면 한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나승호·조범준·최보라·임준혁,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013. 12.
-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쟁점사항 개선방안”, 무역상무연구 제5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박순번·김화년·권혁재·박찬수, “한중 FTA 의의와 주요 쟁점”, 삼성경제연구소, 2011. 4.
- 박윤환·최창환, “한·중 FTA 협상에 따른 공산품의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추정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 박재환·박명수·김대엽,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창업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 서창배, “한, 중 FTA와 새만금의 역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제2호, 2015.
- 안영철, “한·중 FTA의 한국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2013.
- 양평섭·박민수,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30호, 2015. 11. 25.
- 양현봉·박종복,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12.
- 이영수·권순국, “한·중 FTA와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방안”,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이은석·이정욱·박나연·김유신,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국은행, 2012.
- 전병호, 강병구, “한·중 FTA체결에 따른 정부의 MRA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 정상은, “한·중 FTA가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분야 쟁점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제11권 제24호, 한국무역협회, 2012.

- 최문·김상호·이천국,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국제경쟁력 분석”, 한국지역경제 연구 제19집, 한국지역경제학회, 2011.
- 최재섭, “ 한· 중 FTA 체결과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2016. 1. 13.
- 한중훈, “6하 원칙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 키워드와 유망품목 제시”, 전국경제인 연합회, 국제협력팀, 2016, 2. 4.

ABSTRACT

The study on the Ways to Activation of the Youth Starting up a Business by Korea-China FTA

Dong-Ho KIM

After contracting of Korea-China FTA, we have expected the trade volume has mutually been increasing a lot. If we are using this contract, we would make an activation of Korea economy. Especially, Korea young man has been caught a big chance to make a business in Korea & China.

For example, Xian, which is one of center of silk road, has become big strategy area. As we need to focus on this area, we will b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consumer's industries like cosmetic,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eco-friendly items.

Recently, the young man starting up a business has become a trend of kinds of alternative new job. Then, we have to provide practical solution for young man. One of this solution is 'starting up a business'.

In this study, I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Korea-China FTA and the youth starting up a business. So, I believe that this study can light up on the direction of effective starting up for making & success a business in China.

Keywords : Korea-China FTA, Starting up Business, Tariff & Non-Tariff Barrier, the Effect of Korea Economy